

해체주의 패션에 보여진 외형적 양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ernal Form Characteristic Depicted on the Deconstructional Fashion

김 혜 정(Hye-Jeong, Kim)

담양대학 패션디자인과

1. 서론

(要約)

복식은 조형적 구성의 측면에서 그시대의 예술양식을 수용, 표출한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복식과 예술분야가 통합적 조형 양식으로 존재하면서 동시대적 사상이나 이슈를 반영할 뿐 아니라 여타 문화현상들과 상호의존적 또는 상호수정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련의 전위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아방가르드적 현상으로서 해체주의적 현상을 밝힘은 그동안 논의되었던 조형양식적 측면과 미학적 측면에서의 복식을 재조명하는 그 의의가 있다.

2. 해체주의 패션의 이론적 배경 및 경향

- 2-1. 해체주의 이론적 배경
- 2-2 해체주의적 경향
- 2-3 예술과 패션의 소통성

3. 현대패션 경향

4. 해체주의 패션에 보여진 외형적 양식의 특성

5. 결론

참고문헌

해체주의 패션은 모더니즘적 양식을 반박하여 형식이나 구성에 있어 전위나 물형식과 비구조화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것은 외형적 구조로서만이 아니라 인식론이나 내재론적 측면에서도 이성적 주체관, 현전의 형이상학, 이분법적 사고의 붕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패션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고유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양식의 이종교배, 과거양식의 인식, 복합성과 모호성, 다양한 매체의 이용 등과 같은 패션 트랜드 속에서 재해석되고 변경, 수용되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is the deconstruction of functionism and means the complex phenomenon of disharmony such as the reputation of purity, search for history, irony and so on.

The perceptual system of post modernist and deconstructionist philosophy, that allow us to have the critical angle of view such as the deconstruction of the existing foundation and the absence of the meaning of the reason-centered thinking of the west, is shown to be grafted into design, fashion and so forth. These elements are taking root as the style of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deconstructional fashion revolting against the existing regime has been reconstructed and created a innovative aesthetic sense by going so far as to address the way that clothing is formed, the way to handle materials and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elements.

The deconstructional fashion depicted on new interpretation of the body proportion with planeness and specificity while ignoring three-dimensionality, structuristic rationality

(Keyword)

Deconstructional fashion, Decomposition, Decentring

1. 서 론

현대에 있어서의 문화의 범주는 디자인을 포함하는 오늘날의 모든 현상을 일컫는다고 할 때 해체주의적 형태는 문화적 양식으로 존재하며 수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사고의 발상을 이끌 뿐 아니라 타문화 예술장르와도 상호관련하면서 현대 문화의 큰 특성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해체의 모더니즘의 비판은 형태(form)와 형상(figure), 양식(style)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현상과 관련하는 것으로 기존의 모더니즘의 독단적, 이성적 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의성과 우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써 ‘외부’/‘내부’로터의 해체라는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해체의 철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디자인의 결과물에 해체의 철학적 개념을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한편 철학은 해체주의의 한 경향으로 디자인적 요소들을 수용하며, 디자인과 철학의 관계성이라는 새로운 철학개념의 논의를 파생시켰다.

그러한 예는 전반적 예술분야를 포함하여 복식분야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현대 패션에 있어서는 정신과 표현수단이라는 양자간의 피드백(feedback)을 만족하면서 새로이 부상되는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는 이탈적 현상들이 해체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과 결합되어 현대패션의 변화양상의 커다란 배경이 되고 있다. 그 결과 복식의 형태에 있어서는 양식의 이종교배, 과거양식의 인식, 복합성과 모호성, 타영역과의 상호 텍스트성, 다양한 매체의 이용 등으로 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탈 현대적 스타일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패션쇼도 이벤트를 겸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구성으로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조형미로서의 패션으로서가 아니라 전통적 개념으로서의 조형미의 부정의 논의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탈적 형태로서 패션에 있어서는 양식의 거부, 형태의 전도, 중첩, 이동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탈 이성적 탈 형태는 외형적 해체와 관련한다 할 것이다.

특히 패션은 타자(他者)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매체로서 뿐 아니라 자기자신의 존재원리이자 표현의 포용성을 갖는 상관원리로서 존재하므로 미적 대상으로서의 패션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예술적 유형이나 시대상이 반영되어 진 양식의 개념으로 현대패션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나타난 해체주의 패션을 살펴보는 것은 해체주의에서 보여주는 인식론이나 제반경향 등과 함께 해체주의 패션의 의미나 내용, 주된 표현기법 등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현대기류를 적절히 인식하여 언어로서의 이미지나 그러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현대패션의 조형적 측면을 고찰하여 현대패션디자이너들의 패션경향을 분석하고 현대의 조형양식 및 미학적 측면을 재조명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해체주의 패션의 이론적 배경 및 경향

2-1. 해체주의 이론적 배경

해체주의 이론은 탈구조주의 이론으로부터 시작되어 F. de Saussure의 일반 언어학적 이론이나 Levi Strauss의 구조인류학적 이론 또는 Rauland Barthes의 사회규약 이론이 핵심을 이루는 추상적 구조나 체계에 대한 불신 또는 괴리를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주의 안에서 구조주의를 비판하는 것으로 탈구조주의는 구조주의를 기초한 논리적 발전이며 계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탈구조주의 이론은 새로운 구조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처음의 구조를 우회함으로써 그것을 지지하고 있던 제반가치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고 구조의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고 있다.¹⁾ 구조주의를 기반으로 한 언어학적 공격으로서의 해체론의 논의는 1966년 가을 J. Derrida가 존즈 흉킨즈 대학에서 Levi Strauss의 구조주의에 숨어 있는 이성중심적 한계를 폭로하면서였으며²⁾ 그 외에도 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아 언어와 무의식적 체계를 연결시킨 J. Lacan의 이론 등이 있다. J. Lacan은 무의식의 세계와 꿈의 작업(dream work)은 기표의 법칙을 따른다고 주장하면서 현대 정신분석학을 태동시키면서³⁾ 해체론의 시대를 열었다.

단일한 사상체계가 아닌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여러 현상들을 포함하는 해체주의는 플라톤(Plato) 이후 서양철학이 철학과 문학, 이성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 등의 이분법적 논리에 대항하여 언어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자신의 역할을 위해 결과가 예정된 목적론적인 계획을 추구하지 않으며 절대적이라고 생각되어 온 기존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해체주의에 나타난 것은 표면적 불안정을 통해 기존의 조화, 통일, 안정성과 같은 가치에 도전하여 본원적인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⁴⁾

이는 보편적 규범이나 절대 진리나 중심, 근원의 횡포를 거부하고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타자를 인정하고 포용함으로서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인식체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별적 인식의 체계가 아니라 종합적 사고로서 무한한 형식과 사상, 미학적 관계를 상호연결하는 통합의 장(場)으로 받아드릴 수 있다.

해체주의를 ‘신구양식(新舊樣式)-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양식으로 그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독자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하나가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것도 아닌 양식·의 갈등과 이를 양식에 부여된 관심사항의 갈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5) 할 때 해체전략을 단순히 하나의 양식으로서가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예술가와 사상가들의 의도로 파악하여 이를

1) 이광래 편,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p.372

2) Vincent B. Leitch, Deconstructive Criticism an Advanced Introduction., 권택영 역, 문예출판사, 1988, p.54

3) Vincent B. Leitch, op. cit., p.2

4) Philip Johnson & Mark Wigley, 해체주의 건축, 도서출판 전일, 1991, pp.8~18

5) Hal Foster, The Anti-Aesthetic, 윤호병 외 옮김, 반미학, 현대미학사 1994, p.19

의 공통된 인식으로 해체주의를 재해석하는 데는 예술경향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2-2. 해체주의적 경향

모더니즘과의 결별은 1910년대 뒤샹(Marcel Duchamp)이 기성 품을 오브제로 사용함으로써 공간의 콘텍스트를 다양하게 표출하여 현대미술의 실험 가능성을 환기시켜준 이후 앤디워홀(Andy Warhol), 올덴버그(Oldenberg),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리차드 해밀턴(Richard Hamilton)이 주도한 팝아트(pop art)와 5,60년대 초 미니멀리스트(minimalist)들이 M. Duchamp의 제스춰를 모방하듯 회화와 조각의 경계, 미술 작품과 임의의 물체, 즉 미술과 비 미술 사이의 경계를 수 없는 선을 파기함으로써 더 이상 매체특정성이라는 모더니즘의 개념을 무효화함으로써 패러다임 교체기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미니멀리즘 이후 개념미술의 장르 해체경향의 가속화는 대중적 이미지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비평가에 따라 이 시기를 해체주의의 시발점으로 보는 경향도 있으나 진정한 해체주의는 모더니즘이 전위적인 추진력을 상실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이 드세한 70년대 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비트(Beat)에서 비롯된 일련의 경향들 중 John Cage, Andy Warhol, Jean R. Gordard 등의 아방가르드적 도전의 결과로써 포토 리얼리즘(Photo Realism), 신표현주의(Neo Expressionism), 평크(Punk), 뉴 웨이브 록(New Wave Rock)과 현대적 실험영화나 비디오, 컴퓨터 등 대중성이 강조된 경향들이 사회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떠한 경계나 구분을 없앤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또는 통속 문화간의 열림 형식을 의미하며 예술적 측면에서 보면 투자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문명으로부터 정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의 문명으로의 선회를 뜻한다. 현대사회의 대량생산, 대도시, 거대 국가라는 모던 사회로부터 다양성, 유동성, 탈중심, 국제화, 코뮤니케이션을 특색으로 하는 사회로의 변화는 미술에 있어서 단순히 양식적인 의미에서의 파거의 회복기가 아니라 아방가르드 미술의 전통, 개념미술(conceptual art)⁶⁾의 영향, 정치미술의 수용 등 다양한 맥락이 뒤얽혀 형성되었다. 특히 제국주의와 식민지 정복을 가능케했던 계몽주의적 선민의식의 부정은 제 3 세계 상황에 있어 여성해방, 탈 식민지, 타 집단의 문제에 대한 관심 등으로 나타났다.

오늘의 예술은 현대인의 의식 속에서 증식되어 온 허상을 제거하는 일이고 도시문명이 만들어 낸 모든 사물에서 주관성을 소거하며 사물 그 자체의 정체(identity)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의 사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문학양식보다는 미술양식이 훨씬 적합하고 기능적이라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⁷⁾ 이것은 현대문명에 대한 자기성과 반성이며 근대적 이성의장을 해체함을 뜻한다.

해체주의 미술에서는 구조주의들이 행하던 구조분석이 이성의 허위성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합리주의, 개인주의, 진보적인 역사관을 지탱해주던 과학에 대한 믿음과

이성의 세계관을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것으로 모더니즘에 의해 설정된 양식에 체험적 진술을 존재케 하는 것이다.

John Griffiths는 현대문화의 경향을 하이데거와 테리다의 철학이념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 이론과 관련하여 Francis Bacon과 Dan Graham의 작품을 해체주의의 예술로 보았다.⁸⁾ 아일랜드 작가 Francis Bacon이 괴물처럼 생긴 사람, 기형적인 불구, 병자들에게 집착하여 세계와 인간성의 곤경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서 육체를 근원적인 통일성이라는 환상을 상정하면서 언어가 지나간 자리이자 관념이 더럽힌 장소, 해체된 자아의 현장, 즉 파편화의 둑음으로 보았다(사진1). 이러한 개념은 작가들의 끊이지 않는 표현에 대한 실험정신과 관념적인 표현의 한계성에 대한 도전으로 생겨난 중요한 특징이다.



(사진1)Francis Bacon, Study for Portrait of John Edwards, 1986

유럽의 최근 동향은 정보나 이미지, 상품을 반영한 설치와 오브제, 사진과 비디오, 매체 등의 형식으로 '작품'이라기 보다는 '선언'이나 '발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평가들은 다양한 매체의 이용으로써 새로운 사조를 이끌어 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사진2)



(사진2)Jeff Koons, La Statua che Scandalizzò

6)이론적인 문제들을 실험하거나 사고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 사진, 물건을 사용한 미학적 특징을 갖음

7)박용숙, 현대미술의 반성적 이해, 집문당, 1991, p.184

8)John Griffiths, Deconstruction Deconstructed, Deconstruction,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Inc., New York, 1986, p.93

디자인의 영역에 있어서도 경계가 초월되어 자체 혹은 다른 영역과의 융합과 분열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져 동질성 감각에서 이질성 감각의 디자인으로의 새로운 형태가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⁹⁾ 건축가로서 훈련을 받기도 한 산업디자이너인 다니엘 웨일(Daniel Weil)은 산업디자이너라고 불러지기 보다는 예술가라 칭해질 정도로 획일적인 기준 디자인에 반발하여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논란거리를 만들었다¹⁰⁾(사진3).



(사진3)Daniel Weil, Bag Radio,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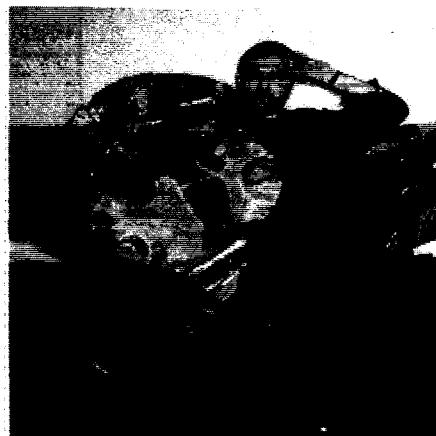
패션디자이너인 R. Kawakubo의 작품과 Ron Arad의 합리적 표현에 대한 제품(사진4)에서 표현된 해체적인 효과가 유사점¹¹⁾을 표현함으로써 해체주의 경향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 등에서 보이는 각 디자인 스타일에서는 사실상 일관된 설명을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체의 개념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다중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디자이너의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2-3. 예술과 패션과의 소통성

최근에 이르러서는 복식이 물질적 예술인 플라스틱 아트(plastic art)로서 독립된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미술영역에서도 복식을 미술의 오브제(objet)로 도입하여 작가나 비평가, 관람자들의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대상이 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예술 전반에 관한 자유의 의지의 한 표현 방법의 창구역할을 하고 관념적인 표현의 한계성에 대한 도전의 한 표현으로서 접경예술(Art Frontière)¹²⁾에 대해 동시대적 사상과 흐름에 대한 수용과 재해석이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한 반영으로서 미술의 오브제로서 의복이 등장

하며 그 의복으로서 작가 자신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단순히 의복이라는 오브제의 선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술적 표현의 장(場)으로서의 공간의 연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예는 한 개인의 창작 활동이나 정신을 표현하는 한 도구로서 의복이 선택되어짐을 보여 주고 있다.



(사진4)Ron Arad, Big Easy Volume II

Rei Kawakubo의 경우는 매장을 현대미술과 접목하여 자신만의 이슈를 부각시켜 해체주의 작가 Cindy Sherman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패션과 예술의 소통성을 확장하였다. 또한 미니멀리즘 작가인 Daniel Buren이 즐겨 쓰는 스트라이프(stripe) 형식을 그녀의 패턴물에 도입하였으며(사진5) 95년, 96년 A/W shop에는 Daniel Buren의 설치작품이 선보이기도 하여 패션과 예술분야와의 통합성을 제시하였다.



(사진5)Rei Kawakubo,
1996

패션디자이너인 Gianfranco Ferè는 건축학을 옷의 구조디자인에 응용하였으며 Romeo Gigli는 건축으로 인한 조형능력으로서 난해한 재단과 새로운 신체비율을 창조하였다. 또한 신발, 호텔, 음식, 옷, 가구, 램프 등 거의 모든 오브제를 만들어 본 Philippe Starck는 제품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용량과 용적

9)Ibid., p.167

10)Peter Dorner, *The Illustrated Dictionary of Twentieth Century Designer*, Headline Book Publishing PLC, London, 1991

11)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pp.38~39

12)예술 각 영역상의 경계선에 위치하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지닌 예술의 형태를 말함

과 유용성을 확대시켜 나가¹³⁾ 영적이면서도 감정적인 디자인을 하였다(사진6).



(사진6)Philippe Starck
Vogue, 1999. 8

Martin Sitbon이 생제르망 텐플레(St. Germain des Prés)에 매장을 오픈하여 프랑스 건축가인 에두아르 부셰르가 솜 인테리어 '소재와 색상의 만남'이란 주제로 스토리를 꾸며 매장의 효과를 높혔으며 Jean Paul Gaultier는 97~98 A/w 오뜨 꾸띠르 콜렉션에서 프랑스 혁명 당시 사형수를 수용하는데 파리 재판소 부속 감옥으로 쓰이던 라퐁시에르즈리를 행사장으로 이용하였으며 John Galliano는 파리 콜렉션을 벼려진 공장터를 집시촌으로 꾸며 패션 퍼포먼스를 연출함으로서 패션과 건축의 경우 사회공동체에서 가장 바람직한 요소인 태도와 취미가 결합되어 표현됨을 보여주었다.¹⁴⁾

기존의 디자이너들은 예술세계에서 영감을 많이 얻지만 역으로 Versace와 예술가 친목단체의 일원인 Jim Dine과 해체주의 대표적 예술가 Julian Schnabel 등은 Versace의 뉴욕 작업실에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Versace의 패션작품에서 영감을 얻는다¹⁵⁾고 하였다.

이렇듯 예술계의 영역은 패션 트랜드(fashion trend)의 영감을 준 원천이 되고 있으며 패션의 테마전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96년의 플로렌스에서 열렸던 예술 & 패션 비엔날레행사(art & biennale), 소호(Soho)의 구겐하임 화랑(Guggenheim Gallery)에서 열렸던 일련의 전시 등은 지금이 1920년대 이후 어느 때 보다도 패션과 예술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¹⁶⁾

99년 5월 19일부터 7월 18일에는 'Brooklyn Bridge Anchorage'에서 예술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거대하고 음침한 장소가 주는 무거운 분위기와 초현실적인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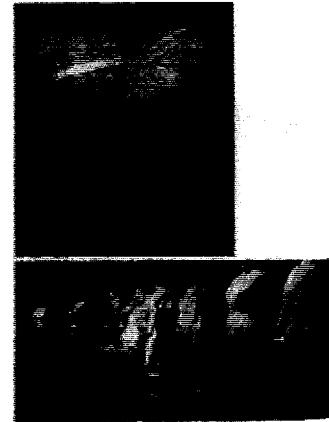
13)Vogue(Korea), 1999. 8, p.179

14)Arthur A. Winters & Stanley Goodman, *Fashion Advertising & Promotion*, Fairchild Publications, New York, 1988, p.120

15)Richard Martin, *Versace*, Editions Assouline, France, 1997, p.79

16)Suzy Menke, "Clothes with a Soul", *Marie Claire (Korea)*, 97. 9, p.182

'미친 과학자'로 알려져 있는 디자이너 Martin Margiela는 부패시켜 곰팡이가 핀 옷을(사진7), 철학적인 디자이너로 알려진 Hussein Chalayan은 비디오 설치 작품을 그리고 뉴욕 주재 영국디자이너 빅틀리아 바틀렛은 몇몇 예술가와 손을 합쳐쳐 거대한 비디오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였다.¹⁷⁾



(사진7) Martin Margiela
Elle, 1999. 8

새롭게 부상되는 유럽의 2세대 주자 중의 하나인 Hussein Chalayan과 같은 패션디자이너는 맥주통 모양을 한 나무로 짜여진 코르셋과 어깨끈 대신 헬륨 풍선을 단 종이로 만든 드레스, 육각형의 아코디언 네크라인을 한 순백의 드레스와 스위치 조작에 의해 착륙한 것처럼 날개가 펼쳐지는 전자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드레스 등의 획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¹⁸⁾

이러한 새로운 도전은 기존의 패션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비상식적이고 특이함이 일상화되는 탈 현대의 커다란 흐름을 공유하는 한 예로 패션이 타 예술과의 상호 관련 속에 존재되어지며 조형적 대상으로서의 패션의 통찰력을 기르는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패션이 비쥬얼 아이덴티티(visual identity)로서 뿐 아니라 인간의 심미적 태도나 미적의지를 나타내는 대상으로 존재하며 복식이 예술의 독립된 한 장르로써 조형양식적 측면과 미학적 측면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현대패션 경향

현대적 개념으로서의 패션은 다양성과 공존성을 의식하고 현대의 기류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발생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

귀족 등 특별 계층에게 소유되던 유행은 20세기의 영화스타나 패션스타, 영상업자 등 고가품의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로 바뀌었고¹⁹⁾ 매스 미디어로 인한 패션쇼나 패션 간행물들의 발달로 패션의 획일화 추세와 표현의 대중화를 확산시켰을 뿐 아니라 미 공개 창작품을 처음으로 공개함으로써 표

17)Elle(Korea), 99. 8

18)Elle(Korea), 1999. 10, p.258

19)Madeleine Delpierre, *Le Costume*, Flammarion France, 1997, p.72

현의 자유를 회복시키며 혁신적 패션을 찾는 근원이 되었다.²⁰⁾

또한 20세기의 패션은 기존의 재단법과는 다른 평면형의 재단법 등 새 유행에 적응할 수 있는 구성방법이 요구되었으며 다양한 기술적 측면의 적용 능력 등과 함께 의복의 기능전환으로 의복의 단순화를 가져왔다. 그러므로써 전위적이며 유행에 민감할 수 있었던 프레파 포르떼는 오직 모든 구속의 거부와 개인의 개성만이 중요시되는 시대적 조류와 부합하여 성장할 수 있었다.

1980년대의 ‘디자이너 문화’는 패션의 철학적 비평의 산출의 도움으로 독창적인 패션을 디자인할 필요가 없어졌으며²¹⁾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유행의 다각화 현상이 1980년대까지 이어져 여러 스타일이 한 사회 안에서 동시에 유행하였다. Takada Kenzo, Rei Kawakubo, Yohji Yamamoto, Issey Miyake 등의 일본디자이너들의 파리 진출과 활약으로 패션을 통한 일본 복식문화의 전파가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패션디자이너들은 서구문화의 영향을 잘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문화와 상호보완하여 서양의 전통적인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역할과 동시에 새로운 패션문화를 창조하였다.²²⁾

또한 80년대에 들어서의 뉴 웨이브(New Wave)의 새로운 인식은 일반 예술을 짹 트게 하였고 패션에도 뉴 웨이브(New Wave) 패션 시대를 맞이하여 펑크(Punk), 히피(Hippie),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 네오모더니즘(Neo-Modernism), 앤드로지니스(Androgynous) 등의 양식으로 루즈 룩(Loose Look), 이국정취(Exoticism), 빅 룩(Big Look) 같은 민족적인 분위기를 이루면서 심지나 안감이 없는 비구조적이고 캐주얼 할 복식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²³⁾ 이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을 앤티패션(anti-fashion)으로 표출하여 기존의 미의식을 부정하고 기존에 반대하는 스트리트 패션으로 젊은 세대에 대한 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²⁴⁾ 80년대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와는 다르게 하위문화적 스타일이 기존패션에 반대되는 경향으로 기존의 패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90년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서의 탈 모더니즘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소외되어 왔던 소수민족과 하위문화의 양식으로부터 차용한 어떤 요소를 원래의 의미로부터 이탈시켜 재해석함으로서 새로운 미를 창조하고 서구중심의 획일적 미의식을 붕괴시켰다.²⁵⁾ 패션의 복합적이고 일탈적인 외관은 탈 현대적 경향에 힘입어 ‘탈 해체’로서가 아니라 ‘이후’라는 정신적 또는 외관적 형식의 승계의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전반적 패션 경향들 속에서 20세기 말 패션디자이너들은 기존의 패션경향과 상호 의존적 또는 상호 반작용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향력 있는 경향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1990년대의 패션은 해체와 쇠퇴(deconstruction & decay)의 모델을 찾고 있으나 현실의 권위주의적 획일성을 해체시키는 강렬한 미적 비판정신을 내포한 현대 패션은 Rei Kawakubo

와 같은 일본디자이너에 의한 진보적이며 독자적인 시도들과 Jean Paul Gaultier와 같은 기존의 디자이너들의 패션의 새로운 해석 이외에도 새롭게 시도되는 네덜란드, 벨기에 디자이너인 Martin Magiela, Romeo Gigli 등과 언더그라운드의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또 다른 패션현상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는 20세기말의 패션디자이너들의 조형적 특성으로 의복이 형성되는 방법, 소재를 다루는 방법과 생리학과 심리학적 요소까지도 논의함으로써 재구성되고 혁신적인 심미안을 창출하였는데 그것은 국가별로도 특징적 요소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4. 해체주의 패션에 보여진 외형적 양식의 특성

20세기에는 새로운 예술운동의 범람으로 대표할 만한 양식적 특징은 보이지 않고 다양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로 전통적인 장르가 혼합되거나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²⁶⁾ 패션의 세계는 변화의 수레바퀴로서 패션의 개념의 재해석과 복식의 잠재 가능성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다. 복식으로서의 규준은 패션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제작하고 숙고하여 기본적 구성으로서 의복이 형성되는 방법, 소재를 다루는 방법과 생리학과 심리학적 요소까지도 분석하고 논의함으로서 발전 변화하고 있다. 글자 그대로 예술가들은 의복을 분리하기 시작하여 재구성하거나 해체하였다. 소재를 찢거나 더럽히거나 구김을 주기도 하였다. 언더웨어가 걸옷으로 입혀졌고 그런지 룩(Grunge Look)과 혈령한 형태로 재창조되어졌고 새로운 방식으로 감싸거나 입혀지면서 재구성되거나 해체되었다.²⁷⁾ 또한 옷의 안감을 없애거나 옷을 깁는 일이 행해졌으며 빛을 엷게 하고 구멍을 뚫는 스톤워싱 진(stone washing jeans)과 거의 흡사한²⁸⁾ 구성법이 행해졌다.

Juliet Ash는 1990년대의 세계 디자인에 명백히 파괴의 충격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Vivienne Westwood의 작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Romeo Gigli의 뉴욕에서 보여준 1990년 콜렉션은 소비적이고 도회적인 패션의 ‘승리자들(victims)’이 물러나고 대신에 다운타운의 예술세계로 대치된 것을 목격하였다²⁹⁾고 하였다. 1993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Metropolitan Museum)에서 개최된 “Infra Apparel” 전의 카탈로그 저자 Richard Martin과 Harold Koda는 복식에 있어서 해체주의는 웅집성 있는 전체 즉,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 안에서 반대적인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인공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외형을 혼란시킴으로서 파괴시키거나 황폐화시키는 것이라 말하므로써³⁰⁾ 새로운 형태로서의 의미적 해석과 재해석으로 모더니즘의 붕괴와 탈 현대 패션이론의 축발을 가져왔다. 20세기 후반의 전제조건은 완전함을 파괴시키고 완성된 의복으로부터 만든다는 것에 대한 궁정적 태도와 그에

20)Ibid., p.76

21)Juliet Ash & Elizabeth Wilson, *Chic Thrill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alifornia, 1993, p. x iii

22)정설호, 현대패션 모드, 교문사, 1996, pp.183~184

23)백영자·유효순,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1994, p.445

24)정설호, op. cit., p.184~185

25)노정심,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68

26)채금석,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1995, p.2~3

27)Robyn Healy, *Couture to chaos*,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London, 1996, p.58

28)Edited by Palais du Louvre, *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 Beaux Arts, Paris, 1996, p.60

29)Juliet Ash & Elizabeth Wilson, op. cit., p. x vii

30)Richard Martin & Harold Koda, op. cit., p.96

반발하는 파괴하는데 대한 부정적 태도사이의 불명료함이 내포³¹⁾된 것으로 봉제구성상의 부정형성으로 안감과 봉제기법의 표면화로 나타났다. 신진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된 안감과 봉제기법상의 표면화는 찢어지거나 해지는 등의 비구조적 형태로서가 아니라 분석적이며 구조주의적이며 합리화의 우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980년대 일본 디자이너들은 의복형태와 장식문양의 새로운 방식의 해석을 소개하였는데 특히 현대의 '국제적 스타일'을 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Miyake Yamamoto, Yohji Yamamoto와 같은 디자이너들은 프랑스와 이태리의 오뜨꾸뜨르의 법칙을 단호하게 깨버렸으며³²⁾ 검정과 회색 등으로의 색상의 절제와 단순한 재단 방법 등으로 파격을 가져왔다.³³⁾ Rei Kawakubo의 패션디자인은 기능적인 면과는 단절되어 있다. 늘 새로운 소재와 의복형태를 창조한 그녀는 의복을 조각 같이 축소시키고 늘리고 염색하고 탈색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불규칙적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³⁴⁾ 이는 탈이성적 표현으로서 임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존의 패션에서 보여지는 인체의 미적 관념을 깨으로서 새로운 인체의 미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John Galliano는 1999년에 이어 2000 S/S 파리 오뜨 꾸뜨르 컬렉션에서는 세느강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랑인 아가씨들을 주제로 하여 "Wet World(알콜에 젖은 세계)"라는 컬렉션을 발표하였는데 이 쇼는 1930년대의 Rag Ball(넝마 축제)"를 상기시키고 있다. 이번 쇼의 재킷, 드레스, 팬츠 등을 보면 스트레치되고 슬래시를 넣었으며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되었다. 라이닝을 찢어 드레스 형태로 만들고 커다란 바지는 위로 바짝 치켜올려 마치 어깨를 드러낸 점프 수트 같이 되었다.³⁵⁾ (사진8)



(사진8)<http://www.fashiontalk.com/trend/couture/hc00ss/cd/main01.htm>

Alexander McQueen은 '99 S/S 런던 컬렉션에서는 핸드 메이드의 의족을 낀 장애인 모델을 등장시켰다. Hussein Chalayan도 복제인간처럼 얼굴에 분칠을 하고 머리를 테이프로 동여맨 모델들이 무대에 섰으며 어떤 모델은 드레스에 플라스틱 의자 를 매단 채 걸어왔고 또 다른 모델은 철로 케이스와 같은 드레스를 입고 나와³⁶⁾ 전위적이며 획기적인 컬렉션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사진9)



(사진9)<http://www.fashiontalk.com/trend/99sscoll/collection/london/tlw103.html>

또한 Hussein Chalayan은 2000 F/W London Women's RTW Collection에서 스테이지를 거실 같은 공간으로 꾸며 네 개의 의자, 한 개의 테이블, 납작한 스크린TV, 몇 개의 컵과 주전자, 나머지는 모두 회색의 여백으로 처리하고 쉬크한 그레이 시프트 드레스가 의자와 접목되고 의자의 터버는 완벽한 시프트 드레스 버전으로 변했으며 마지막 모델은 테이블의 한 가운데 서서 그것을 끌어올리자 바로 나무목의 스커트로 변하였다. 끝으로 의자는 수트케이스로 접혔고, TV 스크린도 사라져 버려 빈 공간이 되어 버렸다.³⁷⁾(사진10)

이러한 복식의 형태는 공간 속에 존재함을 의미하며 그 공간에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과 특정 불가능한 무한대의 우주공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재료와 방법, 미래의 미술로 향한 조형실험은 새로운 시각형식의 탐구와 확대를 보여줌으로서 예술과 기술의 효율적인 통합으로 새로운 환경이나 창작시도에 공헌함을.³⁸⁾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탈중심적 패션은 다양한 질서의 기하학적 구성들이 독립적 의미를 가지고 시각적 구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뉴웨이브 패션은 검정색의 의복을 중심으로 휘감기, 두르기, 매기, 걸치기 등 다양하게 레이어링 시킨 비구조적인 실루엣과 비형식의 형식을 도입하여 전위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식되어 실험적 의복으로서 인식하기에 수월하며 인체무시로서 구성의 형식에 새로운 프로포션과 변형으로

31)Martin, Richard. & Koda, Harold. *Infra Apparel*.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3.

32)Penny Sparke, *Design Source Book*, 편집부 옮김, 현대디자인의 전개, 마진사, 1994, p.198

33)Madeleine Delpierre, op. cit., p.66

34)Robyn Healy, op. cit., p.58

35)<http://www.fashiontalk.com/trend/couture/hc00ss/cd/main01.htm>

36)Baazar(Korea), 1999, 6, p.205

37)<http://www.fashiontalk.com/trend/fw/collection/womens/./main01.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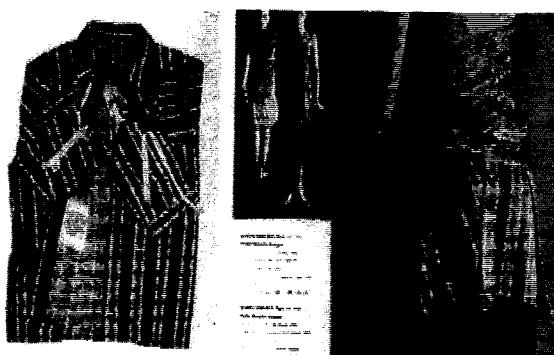
38)최병상, 조형, 미술공론사, 1990, p.13



(사진10)<http://www.fashiontalk.com/trend/00fw/collection/womens/l/main01.htm>

서 관념의 초월을 나타낸다.

1980년대 성혼합의 또 다른 방법을 보여준 일본 디자이너 Rei Kawakubo와 Yohji Yamamoto는 기하학적이면서 비대칭적인 의복 중 아래에 인체형을 완전히 위장함으로서 여성답거나 장식적인 전통적인 서구 여성복에 대한 관념을 거부하였다³⁹⁾ Martin Magiella의 작품 중 가장 흥미로운 해석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입는 셔츠를 선보였다. 등에 단추가 있고 소매를 팔에 끼워 입는 대신 소매는 몸통을 두르도록 되어 있다. 소매 끝에 면으로 된 끈이 바느질이 되어 둑을 수 있고 칼라 양 끝에 고무줄이 연결되어 있어 변형된 의복을 표현⁴⁰⁾하고 있으며 파자마(pajamas)형의 인도풍 패션이 도입되어 이국취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또한 형태구성은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인체형의 무시, 왜곡, 모호함, 기존의 의복형태로 부터의 탈피, 기하학적 단순성 등으로 유동적 실루엣을 이루는 것으로(사진 11) 어떤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브제의 통일이 아닌 개념으로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적 현상으로부터의 탈피를 말한다.



(사진11)Matin Magiella, Couture to Chaos, 1996

39)김주영·양숙희, 현대 복식에 나타난 “내부로부터의 해체”현상, 한국의류학회, Vol. 22, No.1, 1998, p.8

Carney, Vicky, *Fashions of a decade: the 1980's Facts on File*, p.20 재인용

40)Robyn Healy, op. cit., pp.67~68

20세기 후반의 전제조건은 완전함을 파괴화 시키고 완성된 의복으로부터 만든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그에 반발하는 파괴하는데 대한 부정적 태도사이의 불명료함이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⁴¹⁾

인체의 곡선과 동작에 따라 입체적 효과는 드러나며 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반영은 옷감의 유연성과 구성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파리 오뜨꾸뛰르 콜렉션에서는 네털란드 출신의 빅터 호스팅과 또한 패션디자이너 룰프 스노렌스가 블랙의 조명 아래 단 한명의 모델에게 햄 라인이 너덜너덜한 속옷부터 레이스 드레스, 반짝이는 소재의 원피스, 엠브로이드로 된 리넨 원피스와 롱코트, 롱 드레스 어깨에 패딩된 롱 코트, 패딩 롱코트, 마지막으로 쿠쿤스타일의 옷을 입혀나가는 것으로 콜렉션을 가짐으로서 아방가르드하고 감각적인 자신만의 이슈를 표하였다.⁴²⁾ (사진12)



(사진12)빅터호스팅, 룰프 스노렌스, Vogue, 1999. 11

이는 의복의 외관형태를 인체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착장함으로써 형태의 규율을 파괴하고 프로포션의 비율을 독특하게 적용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⁴³⁾ 인체형을 따라 원통형을 강조하여 부풀려지거나 과장하여 입체를 강조하는 의복의 한 구성형태로 구성상의 변형을 통해 왜곡과 과장으로서 시각적 착시를 유발시키고 미적 통일로서 작품의 부분들이 명확한 질서 하에서 결합되고 성립된다는 사고에 역을 취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5. 결론

복식은 디자인, 공예, 조각, 건축, 등과의 조형적 구성의 측면에서 그 시대의 예술양식을 수용, 표출한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복식과 예술분야가 통합적 조형양식으로 존재하면서 동시대적 사상이나 이슈를 반영할 뿐 아니라 여타 문화현상들과 상호 의존적 또는 상호수정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41)Richard Martin & Herold Koda, op. cit., p.97

42)Vogue(Korea), 1999. 11, p.115

43)Elle(Korea), 1997. 9

러므로 최근의 일련의 전위적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아방가르드적 현상은 예술현상과 상호관련하면서 해체주의적 경향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해체패션은 내부로부터의 사유와 외부로부터의 사유로서 볼 때 해체주의 패션의 외형적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복식의장적 측면에서 보면 탈 모던적며 탈 이성적이라 할 수 있으며 고전적 규범에 대한 열린 사고로서 존재한다. 이는 디자인에 있어서 기술적 또는 과학적 발달로서만이 아니라 복식이 사회문화 현상의 거울로서 복식디자인 요소들의 감정적 효과가 형태나 구성요소와 관련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체를 의식하는 실용적 의복에서 형태와 기능을 별개로 인식하는 전위적이고 비구조화의 형태를 띠는 해체패션은 봉제구성상의 부정형성이나 실루엣에 있어 획기적인 인체비율의 해석 또는 새로운 재료와 방법 등을 이용한 조형적 실험으로 새로운 시각으로의 전환 및 해석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로써 심리적 충격을 비롯한 기발한 아이디어와의 유희적 효과나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는 의미와 공간이라는 현실 속에서 논리적 모순관계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3차원, 4차원으로 가능케 하는 푸코의 다시점(panopticon) 관찰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며 또한 불확정적 세계관을 의미하는 Jaques Derrida의 교차대구법(chiasmus)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용숙, 「현대미술의 반성적 이해」, 서울: 집문당, 1991.
- 백영자·유효순,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1994.
- 이광래 편,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 정삼호, 「현대패션 모드」, 서울: 교문사, 1996.
-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1995.
- 최병상, 「조형」, 서울: 미술공론사, 1990.
- 김주영, 양숙희, 현대 복식에 나타난 “내부로부터의 해체” 현상, 한국의류학회, Vol.22, No.1, 1998
- 노정심, “아방가르드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Foster, Hal. 「Anti-Aesthetic」, 윤호병 외 옮김, 서울: 현대미학사, 1994.
- Hollander, Ann. 「의복과 성」, 서울: 경춘사, 1996.
- Leitch, Vincent B. 「Deconstructive Criticism an Advanced Introduction」, 권택영 역, 서울: 문예출판
- Penny Sparke, Desing Source Book, 편집부 옮김, 현대디자인의 전개, 미진사, 1994
- Philip Johnson & Mark Wigley, 해체주의 건축, 도서출판 전일, 1991
- Bazza(Korea), 1999. 6
- Elle(Korea), 1997. 9, 1999. 8, 10
- Marie Claire(Korea), 1997. 9
- Vogue(Korea), 1999. 11,
- Ash, Juliet. & Wilson Elizabeth. ed. Chic Thrill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 Delpierre, Madelene. Le Costume. France: Flammarion, 1997.
- Delpierre, Madelene. Le Costume la Haute Couture, France: Flammarion, 1945-1995
- Dormer, Peter. The Illustrated Dictionary of Twentieth Century Designer. London: Headline Book Publishing PLC, 1991.
- John Griffiths, Deconstruction Deconstructed, Deconstruction,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Inc., New York, 1986
- Haye, Amy de la and Dingwall, Cathie, Surfers Soulies Skinheads & Skaters, Victoria and Albert Publition, 1996.
- Healy, Robyn. Coutre to Chaos. London: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1996.
- Palais du Louvre ed. 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 Paris: Beaux Arts, 1996.
- Martin, Richard. Versace, France: Editions Assouline, 1997.
- Martin, Richard. & Koda, Harold. Infra Apparel.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3.